

# 새정치 전대 코앞인데 ‘흥행카드’ 안보인다

### 국정농단·통진당 해산 등 대형사안에 이슈부각 실패 대표·최고위원 후보등록 마감 5일 앞...분위기 썰렁 ‘빅3’도 도전 결정 늦어져 경쟁구도 조차 안갯속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2·8 정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도, 이슈도 찾아보기 힘든 무기력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 마감 시한(27~28일)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선 후보를 찾아보기 힘들다.

22일 현재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 선언에 나선 후보는 김동철 의원과 이인영 의원 등에 불과하다.

당권 향배의 최대 변수인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의원 등 ‘빅 3’의 당권 도전 결정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빅 3’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으로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심을 거듭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후보 등록 막판에 출마를 선언, 당내 비주류·중소 후보군의 단일화 등 변수를 차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빅 3’ 동반 불출마 서명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출마 선언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워 눈치보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빅 3’가 성탄절 이후인 오는 26일 당권 도전 여부를 결정하면서 전체적인 당권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위원 경쟁 구도도 오리무중이다.

주승용, 오영식, 전병헌, 김태연, 전해철 의원 등 당내 7~8명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식 출마 선언은 정청래 의원이 유일하다.

이는 당권과 최고위원 경쟁 구도가 연동되

고 있기 때문이다.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당권 구도가 가닥이 잡히자 최고위원 경쟁 구도도 가시화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당권 및 최고위원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이슈도 실종되고 있다. 혁신과 변화, 정권창출 등의 전대용 구호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치열한 대결 구도와 이슈 경쟁이 실종되고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논란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 대형 사안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새정치연합의 전대 흥행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민적 관심을 끌어 모을 동력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빅 3’에 맞서는 후보단일화와 계파 전쟁 논란, 친노와 비노 후보 간 전면전 등 다양한 흥행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후보 등록에 앞서 대규모 출마선언을 갖고 치열한 이슈 경쟁 구도가 펼쳐졌을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대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국정농단 덮지 못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덮일 것이라 기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당대표 출마 기정사실화 “친노-비노 틀 벗어나 당 근본부터 바꿔야”

22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남을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8 정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다만 ‘빅 3’의 출마에 반대하는 당내 일부 움직임이 있어 공식 표명은 뒤로 밀었다.

문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친노와 비노의 틀을 벗어나야하며 근본적으로 (당을) 바꿔야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총선·대선도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관리 측면에서는 박지원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보다 낫다고 볼 수 없지만 변화 측면에서 보면 (자신이) 낫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중도·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불출마를 촉구한 것과 관련 “그들이 변화를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생각해볼겠지만 아무런 대안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당 대표 선출하는 것이 분열·갈등 구조로 보여진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주변에서 ‘독배’라며 당 대표 출마를 말리는 사람도 있지만 회피해서는 안 되고 변화의 요구가 나에게 물리고 있는 것”이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해서는 “호남정치복원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분당론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것이 호남 정치의 정신이며 가치라는 점에서 이것이 주류가 되게 하는 것, 이기는 정당인 것이 곧 호남정치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여야 원내대표 운영위 개최 등 의견 접근 파행국화 정상화 타진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해소를 위한 국회 운영위 개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연말 임시국회가 정상화 분수령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유운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약속 회동을 갖고 운영위 개최를 포함한 현안을 조율했다.

여야는 23일 예정된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연석회의로 확대,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도 앞서 실무 접촉을 갖고 운영위 개최와 부동산 3법 등 민생법 처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내일 협상하겠다”며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야당의 의견도 존중해 실제적 진실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운영위 개최에 대해선 아직 합의 못했다”며 “오늘은 이야기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내부적으로 새누리당이 운영위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새정치연합도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상임위 개최에 응하는 정도에서 사실상 잠정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원의료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과 공무원 연금 대타협기구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최종 합의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밤까지 불발 접촉을 지속, 운영위 개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與, “새정치, 낡은진보와 절연해야”... ‘원죄론’ 공세 전환

## 野, “현재 재판관 구성 개선해야”... ‘불복 프레임’ 우려도

### ‘통진당 해산’ 연일 공방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대치해온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새로운 전선을 형성해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현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다”(새누리), “무겁게 받아들인다”(새정치연합)는 반응을 보였지만 주말을 지나 여야의 입장이 확실히 나뉘면서 거친 표현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승희 문건과동으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

당은 22일부터 공세 모드로 급전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만을 위해 통진당과 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복과 헌법 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과 절연해 선언해야 한다”면서 “건전보수 대 건전진보의 경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현재 판결에 불복한다면 헌정질서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려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현재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역공을 취했다.

서정원 최고위원은 “국민 반응이 ‘알던 이가 빠진 것 같았다’, ‘박근혜정부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 해냈다’는 것이어서 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현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했던 새정치연합은 다소 약한 수준의 비판 모드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유운근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현재 재판관 구성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행 헌법에서 현재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을 지명하고, 이들 중 대통령이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유 원내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한지, 구조적 편향성을 탈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현재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실려있다는 인식을 표출한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결국, 정치적이어서 안 된다”고 가세했다.

나이가 새정치연합은 여론의 ‘중복몰이’ 카드에는 “중복몰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는 건 독배를 들이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려는 있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 결정에 대한 ‘불복’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당 전체적으로는 정부·여당이 당분간 중복몰이로 갈 것이라서 현재 결정에 특별하게 대응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가능하면 자원의료나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불씨를 살려가는 게 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급,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b>남</b></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b>여</b></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b>남</b></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길 70m 44년째 BI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625세대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영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물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임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작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용 맞춤브런드 손님을 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